

“트리폴리만 남았다” 반군-친위대 결전 임박

시위대, 리비아 서부지역 대다수 장악 도로 곳곳에 고사포·탱크... 일촉즉발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지지세력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내전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서부 지역의 다수 도시와 수도 인근의 자위야가 반정부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수도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235km 떨어진 인구 6만6000명 규모의 날루트 지역에서는 카다피 친위세력이 완전히 자위를 감했다.

이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후로 날루트는 해방된 상태”며 현재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자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리바트와 카보우, 자도, 로그만, 젠탄, 하와메드 등 서부지역 도시 다수가 해방돼 친 카다피 세력이 철수했으며 이들 도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자위야도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상태다.

이날 리비아 정권은 “리비아는 완

전히 평온하다”는 카다피 국가원수의 주장을 증명할 목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자위야로 데려갔으나 이 지역이 반정부 세력에게 장악됐다는 것만 확인시킨 꼴이 됐다.

자위야를 장악한 수백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중심가에서 “카다피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및 정부기관 건물들은 불에 탔다. 거리 곳곳에 카다피를 비난하는 그래피티도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카다피 친위세력이 자위야 외곽지역을 장악한 채 탱크 등의 무기를 갖고 반정부 세력과의 교전을 준비 중이어서 자위야에는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다피 친위세력은 트리폴리에서 자위야로 통하는 도로에 6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위대로 돌아선 전직 경찰관 2000여명을 포함한 반정부 세력은 자위야 거리 곳곳에 고사포와 군탱크를 배치하는 등 교전에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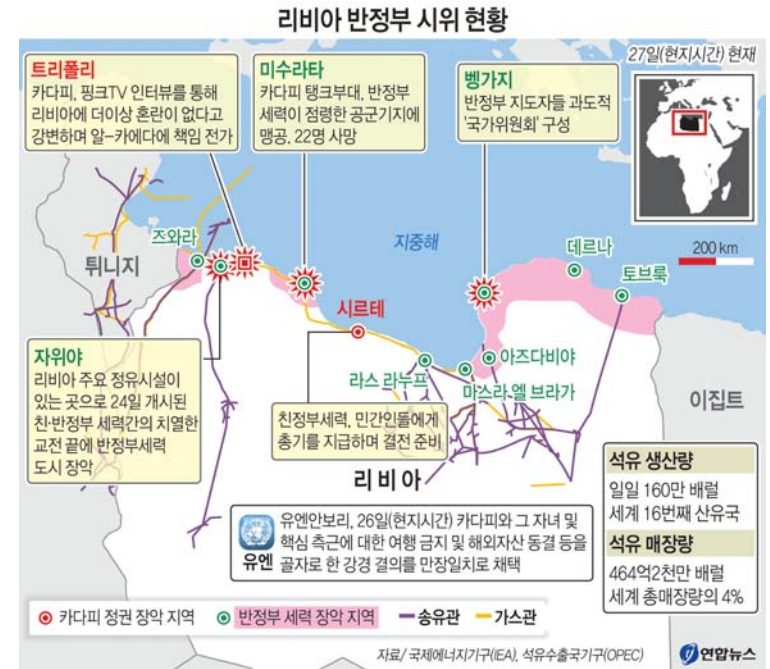
정권의 유혈진압 이후 시위대에 합



리비아 자위야의 광장에서 27일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선 육군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부 지역의 다수 도시와 자위야를 장악한 반정부 시위대는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 친위세력과의 교전에 대비해 거리 곳곳에 고사포와 탱크 등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류한 외할 알-오라이비 군 관계자는 “우리에겐 카다피는 리비아의 ‘드라클라’라며 전의를 드러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ICRC)는 이날 제2 도시 벤가지 내 의료진들의 증언을 인용, 최근 리비아 사태로 벤가지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가 256명에 달하며, 2천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리비아 잔류교민 465명 정부 “조만간 전원 철수”

유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7일 리비아 중서부 지역에서 교민 42명이 육로나 선박을 이용해 튀니지와 몰타로 이동했으며, 동부 지역에서도 교민 2명이 육로를 이용해 이집트로 탈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은 트리폴리 등 중서부 지역에 380명, 동부 지역에 85명 등 모두 465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건설업체들도 전원 철수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리비아에서 모든 교민이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과 선박을 리비아에 추가 투입해 교민을 신속히 철수시키고 리비아 여행경보를 현재의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프 왕정국가 ‘흔들’ 美 중동외교 딜레마

중동을 강타한 민주화 열풍이 이집트에 이어 오만·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권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대 중동 외교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 양상이다.

오만·바레인·사우디 등은 중동의 주요 원유 생산국으로서 미국 및 국제 경제의 중대 변수일 뿐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견제에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이들 3개국 역시 중동에 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점에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기에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원유수송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또 오만은 이란과 함께 국제 에너지수

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이며, 사우디는 미국이 이란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핵심적인 협력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3개국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앞서 미국의 대테러전, 이란 견제 등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동 파트너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제기될 정도다.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시아파의 반발이 폭발한 바레인에서는 지난 27일 시위대가 수도 마나마의 외교단지까지 진출했다. 또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이 41년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만에서는 같은 날 시위 집합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등 시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또 사우디에서는 학자, 인권운동가, 기업인 등 123명이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탄원서를 통해 직접선거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여권 신장, 입헌군주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향후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 사태 때처럼 현 정권의 편에서 서느냐, 반정부 시위대의 편에서 서느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발이 폭발한 바레인에서는 지난 27일 시위대가 수도 마나마의 외교단지까지 진출했다. 또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이 41년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만에서는 같은 날 시위 집합

개혁을 강조하는 새로운 중동정책을 수립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했다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의 26일 보도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군 역할을 해온 동맹국 정권이 급속히 무너지는 상황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점이 미국의 딜레마다.

이와 관련, LAT는 반정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우디, 바레인 등의 정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할 경우 시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채널을 통해 이들 국가 지도자들에게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언급을 전했다.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 의식 완전 회복

지난달 11일 국내 이송후 2번째 대수술을 받은 석해균(58) 산호주열리호 선장이 28일 인공호흡기를 떼 스스로 호흡하는 등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아주대병원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가 다음날 새벽 호흡부전증으로 인공호흡기를 재삽관한 채 치료를 받아온 지 25일 만이고 오만에서 국내로 이송된 지 한달만이다.

아주대병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눈을 뜨고 가족도 알아본 석 선장이 25일부터 기관지 호흡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줄이며 스스로 호흡하는 과정에 적응시켜 현재 자가 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석해균 선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대병원은 기관지절개수술로 인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관지에 삽관한 특수튜브를 이용해 인공호흡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키 리졸브 개시...北 전투동원태세

북한의 극지 도발과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지난 28일 오전 시작했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될 키 리졸브 연습에는 해외지원 미군 5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가 참가하며, 4월30일까지 지속하는 독수리훈련에는 해외 미군 1만500여명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20여만명이 참여한다.

미국 항공모함은 독수리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훈련은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인 '작계5027'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부대도 참가해 북한

핵 및 미사일 등의 제거 훈련도 진행한다.

특히 정전협정 규정에 의해 한국으로 증원되는 장비와 병력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국제참관단 10여명은 방어적 성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훈련을 참관한다고 연합사는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접적 지역 부대 등에서는 상향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최근 NLL 이북 서해안 포병부대와 해군부대에 특별경계근무태세를, 나머지 부대에는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각각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北 “서울 불바다” 연일 위협 대내방송

주민 경각심 고취 차원...심리전 조준사격은 안알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지난 28일에도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인민군 관문점대 표부 성명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관문점대대표 성명을 전한 이후 중앙방송은 당일 오후 3시10분, 9시10분에 이어 지난 28일 오전 6시와 7시 성명 내용을 반복해 전했다.

또 조선중앙TV도 지난 27일 오후 5시10분과 8시 보도를 통해 관문점대대표 성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북한이 통지문 내용을 주민에게 전하는 것은 남한의 전단 및 탈러, 동영상 자료 살포행위 자체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동군사연습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관문점대대표 성명을 전하는 것은 주민에게 위기감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남한의 심리전을 겨냥해 입진각 등에 대한 조준격파사격을 언급한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통지문 내용을 주민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전단 및 탈러, 동영상 자료 살포행위 자체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